

키오스크·무인점포 너무 어려워...IT 세상 '老·답'

카드 찍고 입장하는 무인점포 어르신들 출입 못해 '찢찢' 터미널 무인발권기·카페 키오스크 등 사용법 몰라 '진땀'

인건비 상승, 트렌드 변화 등으로 광주에서도 직원을 줄이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키오스크는 직원 없이도 주문,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주로 매장 내부나 음식 테이블 등지에 설치하는 기계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11일 방문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 무인편의점에서는 노인들이 가게 내부로 들어갈 엄두조차 못내고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입구에 있는 '출입 인증기'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인증기 옆에 놓인 '출입 방법 안내' 입간판을 한참 읽다 결국 가게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날 오전 3시간여 동안 편의점을 이용한 손님은 4명 남짓이었으며, 전부 20~30대 젊은이들 뿐이었다.

김성경(여·64)씨는 "물 하나 사서 가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것도 어렵게 해놓으니 당혹스럽다. 무인 기계는 아무리 연습해도 어렵다"며 "배워가면서 천천히 조작하려 해도 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눈치보인다. 그냥 '안하고 말지' 싶다. 디지털 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버스터미널 매표소 또한 무인발권기로 전부 대체됐는데, 노인들은 발권 안내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표를 뽑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도 9개 무인 발권기 중 직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한 기기에만 노인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장우성(59)씨는 "가족이 미국에서 온다길래 미리 표를 사주려 했는데, 표 하나 사는 것도 어려워 찢찢했다. 이런 것도 혼자 못해 어떡하냐"며 "발권기에서 카드 결제니 포인트 적립이니 말이 쏟아져 나오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멍해진다.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한숨을 쉬었다.

노인들은 테이블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결제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것도 벅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구 충장로에서 만난 정모(83)씨는 "일일이 직원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주문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성가시겠느냐"며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든 카페를 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니 불편할 따름이다"고 혀를 찼다.

반면 업주들은 무인 출입·결제 단말기를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으나, 고불가에 인건비를 아끼기 위



11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9개 무인발권기 중 직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1개 발권기에 노인들이 몰려 있다.

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무릅쓰고 무인 점포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서구의 한 무인 편의점 점장 노송이(여·47)씨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3년여 전부터 무인 점포로 바꿨는데, 가끔 젊은 사람들도 처음 이용하면 헤매기도 한다. 이용하기 어려우면 그냥 발길을 돌리다 보니 매출은 많이 줄었다"며 "고객이 새벽 시간에 물건 사고 나갈 때도 출구 버튼을 누르고 나가야 하는데, 못 찾아서 경찰을 부른 적도 있고 임의로 문을 작동하고 나가는 바람에 아침에 제대로 오픈하지 못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구의 한 무인 카페 업주 김민자(여·55)씨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인건비가 큰 부담이 돼 무인 점포로 운영 중인데, 무인점포 출입이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한 손님은 없다. 고객들이 문 안열리면 그냥 가곤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지난해 전국 무인점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무인점포 수는 6323곳으로, 광주는 156곳, 전남은 136곳의 무인 점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의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비율은 6.1%다. 이 비율은 2020년 3.1%, 2021년 4.5%,

2022년 6.1%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치구를 통해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려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해 1년 동안 구민정보화교육 5회,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13회 등 키오스크 체험 교육을 운영해 305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는 키오스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 구민정보화교육을 12회로 늘릴 방침이다.

광주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또한 오는 5월부터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린이 통학버스가 불안하다

지난해 광주·전남 10대 중 8대 안전의무 위반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7~8대가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이하 공단)는 2023년 광주·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결과 11일 발표했다. 점검 내용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운전자·운전자 교육 이수 등 안전 운행, 차차 확인 장치와 좌석 안전띠 결합,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공단은 1743대의 통학버스를 점검해 1320대에

서 안전점검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율은 75.7%에 달했다.

적발율은 2020년 76.3%, 2021년 68.4%, 2022년 60%, 2023년 75.7%로 지난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라 적발율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운행기록장치 사용법을 몰라 전원을 꺼놓거나, 장치와 연동되는 앱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 등이 많았다.

공단은 신학기 개학에 맞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 계획도 내놨다.

먼저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고 통학버스 안전장치 적발율이 일반차량에 비해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관부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 통학버스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로, 학교주변 사고지점 및 주요 통학버스 운행구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교통사고, 통행행태, 승차 현황, 주행차량 특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범열 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통학버스 이용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역 공동체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거주 외국인 8만 5441명

올 1월 광주 3만1792명·전남 5만 3649명... '베트남 최다'

올해 1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8만 5441명(광주 3만1792명, 전남 5만 3649명)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의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가장 많았다.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광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만949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5770명), 서구(2773명), 동구(1895명), 남구(1855명) 순이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에 9657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했고 여수시(6858명), 목포시(4728명), 나주(4147명), 완도(3991명), 순천(3096명) 순으로 많이 살고 있었다.

국적으로 보면 광주에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이 72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041명, 우즈베키스탄 3658명, 한국계중국인 2602명, 카자흐스탄 1966명, 캄보디아 1483명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베트남 출신이 1만49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4543명), 한국계 중국인(4295명), 중국(3944명), 네팔(3721명), 캄보디아(3448명) 출신 순이었다. 체류 자격도 광주와 전남이 달랐다.

광주에서는 재외동포(F-4비자·6236명)가 가장 많고 유학(D-2비자·5256명), 비전문취업(E-9비자·4308명), 방문동거(F-1비자·3391명), 결혼이민(F-6비자·3247명) 순이었다.

광주시 광산구 월산동 고려인마을에는 재외동포가 가장 많았다.

전남은 비전문취업이 37.20%(1만9956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결혼이민(5650명)이 두 번째, 재외동포(3955명)가 세 번째, 선원취업(E-10)이 다음이었다.

연령대와 성별도 광주는 20대(남성57%, 여성43%) 외국인이 가장 많았지만, 전남은 30대(남성76%, 여성24%)가 많았다.

이 같은 정보는 정부 대표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에서 11일부터 공개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환경단체,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촉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3월 11일) 13주기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공동행동(단체) 등은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후쿠시마 13주기, 영광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저지대회'를 열고 "노후화된 한빛원전 1·2호기를 연장하지 말고 폐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윤 정부는 원전 관련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 1조원의 특별금융 지원 약속과 함께 지난 2022년 12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한빛1·2호기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부터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당시 모두 1970년대 건설된 노후 핵발전소였다"면서 "40년 수명이 다한 한빛 1·2호기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대재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또 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최신 기술미적용, 승인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 준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고농도 오염수를 지난해 8월부터 태평양에 해양 투기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